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9월 28일(일) 제1558호

열방과 함께, 온누리와 함께!

이주민 추석연합수련회 하비스트(Harvest) 'Renewal'
10월 4~6일 파주 영산수련원, 16개국 이주민 787명 참석

드디어 온누리M미션이 주최하는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수련회 하비스트(Harvest)가 'Renewal(다시 새롭게)'을 주제로 10월 4일(토)부터 6일(월)까지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막 오른다.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아랍,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 16개국에서 온 이주민 78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하비스트에서는 <에스겔> 37장을 주제 말씀으로 네 번의 집회가 이어진다. 4일(토) 이재훈 위임목사 '회개', 5일(일) 인도네시아 마주 목사(안디옥국제선교회 평택교회 책임자) '말씀', 해럴드 김 목사(영어예배) '성령', 6일(월) 김태완 목사(온누리M미션 담당) '비전'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국제문화축제, Mini Nations Tour 등 이주민과 함께 맛보고 즐기는 문화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 10월 6일(월) 집회 마지막 날에는 이주민 성도들이 작성한 소망과 비전이 담긴 리뉴얼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함께 헌신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태완 목사는 "열방의 이주민들이 이번 하비스트를 통해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진정한 영적 갱신과 부흥을 경험하기를 바란다"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관련 기사 10면>

재정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온누리교회 온누리M미션)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과 성경 나눔 ... 10월 19일까지 현금 및 접수

추수감사절 감사의 쌀과 성경 나눔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순과 성도들은 10월 19(일)까지 현금 및 대상자를 접수해야 한다. 현금은 각 캠퍼스 송금 계좌로 6만 5천 원(쌀 20Kg 한 포대 가격)을 기준으로 형편에 맞게 봉헌하면 된다. 송금 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35705'다.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순에서 현금을 입금할 때는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일곱 자

이내로 기재해야 한다. 개인 참여 성도들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면 된다.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는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의 확인을 거친 다음, 공동체를 통해서 10월 19일(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서빙고: 25thanksgiving@naver.com, 양재: hyomin2021@naver.com).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서빙고)

각 캠퍼스 담당 간사 / 박지혜 기자

CGN 정기후원 행사 결과 발표

1,761명 동참, 3억7천5백만 원 약정

2025 CGN 정기후원 행사에 1,761명이 동참해 3억7천5백만 원을 약정했다(9월 26일 기준). 후원금은 CGN 방송 프로그램 제작, 장비 운영, 방송위성 사용 등 미디어 선교를 위해 사용한다. 지난 9월 20일(토)과 21일(일) 열린 'CGN 정기후원 행사'는 '당신이 무명(無名)의 선교사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CGN 사역 소개, CGN 창립 20주년 사진전, 가족사진관 운영

등을 했다. 후원 모금 방송도 방영했다. 기독교 OTT '풍당'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9월과 10월은 CGN 후원의 달이다. CGN 후원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CGN 홈페이지(cgnkorea.net)나 전화(02-796-2243), 기독교 OTT '풍당' 인앱 페이지(QR 참고)에서 참여하면 된다. 문의: 02-796-2243



/ 홍하영 기자

10월 23일까지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특별순예배, 축제 캠페인, 온누리사역축제(OMC)

10월 23일(목)까지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특별순예배, 40주년 축제 캠페인, 온누리사역축제(OMC)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순에서 '특별순예배'를 드리고 있다. 10월 셋째 주까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일대일은 온누리에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춤형도' 등을 주제로 순예배를 드린다. 특별순예배는 온누리교회 주요 사역을 이해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매주 이재훈 위임목사의 특별 주제 강의를 듣고 공동체와 사역에 관해 나눈다.

'40주년 축제 캠페인'에서는 '은혜의 40주년', '작은 시작', '부흥의 기억', '선교와 나눔', '다시 새롭게', '세대를 잇다', '비전의 선언'을 주제로 추억의 사진전, 원로 성도 인터뷰, 토크쇼, 공모전, 팟캐스트 라이브, 부흥회, 마라톤 대회 등을 한다.

40주년 기념 웹사이트도 오픈했다. 축제 캠페인 및 온누리사역축제(OMC) 일정 및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또는 하단 QR 코드로 접속할 수 있다.

'2025 온누리사역축제' (OMC)는 10월 21일(화)부터 23일(목)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막 오른다. 21일(화) '교회, 복음으로 서다!', 22일(수) '교회, 문화로 퍼져가다!', 23일(목) '교회, 선교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강의 및 패널토의, 선택강의, 저녁집회 등을 개최한다. 이재훈 위임목사, 이인용 장로(법무법인 율촌), 류현모 교수(서울대학교), 홍정길 원로목사(남서울은혜교회), 김경훈 집사(글로벌 AI기업 한국 사장), Christopher Wright 박사(랭함 파트너십 인터내셔널), 이동원 원로목사(지구촌교회), Nelson Jennings 박사(GMLF 이사장), 유병국 선교사(WEC),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등이 강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10월 12일(일)까지(사전등록 마감) 하단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저녁집회는 따로 참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저녁집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선착순 입장하면 된다. 각 캠퍼스 본당에서 저녁집회 실시간 중계로도 참여할 수 있다.



OMC 등록 문의: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

OMC 행사 문의: 02-3215-3234(3122, 35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10월 6~10일 '전력 증설공사'

서빙고온누리교회 임시 휴관

서빙고온누리교회가 10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전력 수변전설비 증설공사 작업으로 인해 임시 휴관한다. 교회 건물 전체 전기가 차단되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공사 기간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 및 사역 활동은 중단된다. 문의: 02-3215-3120

'대중교통 이용의 날'

10월 4일 오전 7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온누리교회가 10월 4일(토) 오전 7시부터 5일(일) 오후 6시까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캠페인을 한다. 이 기간 교회주차장은 이용이 제한된다. 주차증이 발급된 차량 중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3개월 이하 동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동반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셔틀은 5일(일)만 운영한다.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가나안 정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에서 “그 땅을 정복할 때 조금씩 쫓아내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은 단번에 큰 성취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발걸음 속에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의 전멸에 이어서 기브온 족속이 자발적인 항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다는 것을 듣고, 가나안 땅 남부지역의 여러 부족 왕들이 몹시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왕이 동맹을 맺고 자신들을 배반한 기브온 성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한 성을 상대로 싸우기도 힘든데, 다섯 왕이 동맹한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이 연합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한 번의 전쟁으로 남부지역을 장악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남부지역 연합군을 결성하는 일은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텍이 주도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명이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살렘왕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살렘이 예루살렘으로 이어진 것이라면, 아도니세텍은 멜기세덱의 후손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세텍은 히브리어로 ‘아도니제덱’인데, ‘아도니’는 ‘나의 주님’, ‘제덱’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 정반대되는 생을 살았던 타락한 가나안 민족의 일원이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연합군을 결성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을 그가 주도한 것은 가장 먼저 위험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연합군을 구성해 대적하려고 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급히 올라와 구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기에 요청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곧바로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떠납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언약을 지키는 것이기에 분명한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일처럼 보입니다. 다섯 동맹국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이니 그 땅의 민족들끼리 싸우도록 내버려 뒀도 괜찮을 것처럼 보입니다. 또 기브온과 언약을 맺게 된 것이 속임수에 의해서 맺어진 조약 아닙니까? 그러나 맺어진 언약이었기에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호수아는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태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은 이상 충실하려고 하는 태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격려와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8절).

의무를 뛰어넘어 최대화하는 믿음

하나님이 언제 이 격려와 승리의 약속을 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결심이 먼저입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물을 필요 없이 순종하는 행동, 결심, 실행이 중요합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 거룩한 삶에 대하여 다시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야 할 때 그분이 함께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약 38km입니다. 밤새워 행군했습니다(9절). 대단한 헌신입니다. 더구나 그 지역은 산악지대입니다. 힘든 행군이었을 것입니다. 주어진 의무를 최소화하지 않고 최대화하는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발견됩니다.

우리 삶에서 맺어진 언약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무엇보다 하나님이 관계에서 주어진 의무를 최소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만 깨지지 않을 정도로, 직장에서 쫓겨나지만 앓을 정도로 하는 정도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을 언제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너에게 5리를 가고자 하면 10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을 부릴 때 5리까지는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면, 괴롭히는 게 아니라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최소화하는 삶이 아니라 의무를 뛰어

넘어 최대화하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살육하셨고 벤호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10절).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공포가 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화와 담대함이 임합니다. 기브온을 치려던 남부동맹군에게 큰 두려움과 혼란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최대한으로 순종하려는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계시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벤호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11절).

하나님이 내리신 큰 우박으로 대적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기브온에서 벤호론으로 내려가는 가파른 내리막길로 도망가는 이들이 1차는 이스라엘의 칼에 의해서, 2차는 큰 우박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그래도 빨리 도망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면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사상 전례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아,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12절).

해가 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하여 “그대로 멈춰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을 멈춘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의 생각대로 명령했더니 해가 멈춘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한번 멈춰보겠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명하면 세상이 멈춘다고 믿으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께 이 상황을 올려드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계시를 의지하며 해와 달을 향하여 명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특별한 음성과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더니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순종했을 때 물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해와 달을 향하여 명하도록 계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계속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비슷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런 믿음은 한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여러 역사를 통해 쌓여갑니다. 엘리야도 그릿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수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뺏어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오병이어같이 놀라운 기적이 임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진적으로 훈련합니다. 여러 시험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해와 달이 멈추는, 이 세상을 멈추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세상이 멈추는 기적이 우리에게 불가능하지만 자연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불순종하는 인격을 가진 인간을 다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치하시는 게 그분께는 더 쉬운 일입니다.이것적으로 사는 삶에서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대한 수준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단지 특권을 지키려는 것일까?

누군가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는 전쟁이나 노예제도 같은 온갖 악을 정당화하는 데 쓰여 왔어. 결국, 종교의 자유라는 건 특권을 지키려는 거잖아.”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사실은 힘과 특권에 집착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려는 것뿐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과연 사실일까? 아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기독교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라고 가르쳤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이 믿음이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기독교 가르침의 기초다. 이 생각은 고대 사회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실제로 기독교의 가르침은 잔인한 검투사 경기를 종식했다. 또 아기를 버리는 걸 당연시하던 당시의 풍습을 줄였고, 노예제도에 대한 사회의 시각을 바꿨다. 초기 교회가 생기기 전 인류 역사에서 노예제도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관은 사도 바울 같은 이들에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 결과 기독교인들은 아주 초기부터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기독교 공동체는 노예를 사서 풀어주기도 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5세기의 편지에는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배 한 척에 가득 탄 노예들을 해방시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중세에 들어와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클로비스 2세 왕은 아내 성 발틸드의 영향을 받아 역사상 처음으로 노예로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세웠다. 13세기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노예제도는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 후 수 세기 동안 적어도 네 명의 교황이 노예무역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노예제 폐지 운동은 기독교인과 목회자들이 앞장섰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역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인권 운동을 이끌었다. 오늘날에도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끝내려 애쓰는 사람 중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다. 물론 미국 남부의 일부 집단은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해 인종 차별적 노예제를 옹호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 역사 전체의 주류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었다. 즉, 기독교의 ‘하나님 형상’이라는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더 자주 약자를 보호하는 쪽에서 왔다.

둘째, 종교의 자유 사상도 ‘하나님의 형상’ 교리에서 나왔다. 노예제 폐지 사상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 사상도 기독교의 하나님 형상이라는 교리에서 비롯되었다. 두 가지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온다. 인간을 존중하는 것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엄하다”고 주장한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종교 문제에서 양심을 따를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의미 있는 도덕적 결정을 내릴 능력과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 의지’나 ‘도덕적 책임’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믿음을 강요할 수 없다.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 핵심적인 이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옹호해야 하며, 그 자유에는 각 사람이 자기 믿음에 따라 살 수 있는 종교의 자유도 포함된다.
셋째, 종교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종교의 자유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다. 이것은 황금률, 곧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

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가르침의 적용이다. 기독교인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믿을 자유를 원한다면,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롭게 자기 믿음을 실천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내린 판결은 뉴욕주 가톨릭교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미사를 위해 모일 권리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동시에 유대교 회당 두 곳의 권리도 보호했다. 이런 판결은 특정 종교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이 국가의 과도한 간섭 없이 자기 신앙을 따를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종교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특권을 지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동등하게 존엄하다고 가르쳤다.”
“종교의 자유라는 사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교리에서 나온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분리될 수 없다.”
“종교의 자유는 특정 집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평등한 자유다.”
원문: 콜슨 센터 유튜브 채널 ‘What Would You Say?’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은밀한 세계관

내가 모르는 ‘나의 세계관’



이중희 성도
(중종로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세계관은 한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전제의 집합’이다. 이 전제들은 내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내가 입으로 옳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내 행동을 이끄는 전제가 전혀 다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세계관에 의해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한다.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길을 건너기 전에 좌우를 돌아본다.”
결정론은 모든 사건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미래 또한 바꿀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이다. 특히 과학주의적 결정론은 모든 것이 물리 법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반응의 부산물일 뿐이라고 본다. 인간이 아직 모든 물리 법칙을 이

해하지 못했을 뿐 언젠가는 인간의 의사결정조차 법칙으로 완전히 예측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꾸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며, 인간의 노력이나 선택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길을 건널 때 습관적으로 좌우를 살펴볼까? 좌우를 살피는 행위는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결정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이는 불필요한 행위가 된다.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면 내가 차에 치일지 아닐지는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입으로 고백하는 세계관과 실제 행동을 지배하는 세계관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무신론 세계관의 큰 모순 중 하나이다. 진화론적 무신론자에게 삶의 의미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단지 물리 법칙과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일 뿐이다. 내가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바꾼다고 느끼는 것조차 결국 분자와 원자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노력, 희망, 사랑 같은 개념도 결국 뇌 속 화학 반응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로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소개하는 많은 사람의 삶을 관

찰해보면, 그들의 행동은 그렇게 허무주의적이지 않다. 여전히 의미를 찾으려 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도덕을 중요하게 여긴다. 다시 말해, 말로는 무신론적 결정론을 따르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다른 세계관에서 오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 옳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세계관은 세속적 가치관일 수 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의 실제 삶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오늘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중문화다. 드라마, 영화, 음악, 소셜미디어와 같은 대중문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세계관을 담고 전파하는 매체다. 대중문화를 즐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아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분별하지 않고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하다. 예를 들어 최근 영상 콘텐츠에서는 동

성애나 혼전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묘사된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점차 익숙해지고, 결국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대중가요 중에는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주제를 담은 노래들이 많다. 이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긍정적 의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잊게 만들 위험이 있다. 작은 메시지들이 누적되면 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 행동과 가치관이 진정으로 성경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위한
‘온누리세계관스쿨 기초반’
양재(1~4강 온라인, 5강 대면): 9/18~10/30
(매주 목요일, 추석 연휴, OMC 주간 휴강)
서빙고(대면): 10/14~11/18
(매주 화요일, OMC 주간 휴강)

“어벤처스와 함께 ‘선한 기업’ 만듭시다!”

신임 대회장 박기일 집사에게 듣는 선한 기업과 가치

세상이 변했다. 이제는 단순히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게 기업의 역할이 아니라는 소리다.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고, 이웃을 돕는 ‘선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소속 크리스천 청년벤처대회 ‘어벤처스’ (이하 어벤처스)는 바로 그런 기업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다.

어벤처스는 2015년 ‘러빙U 청년벤처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일회성 경연대회를 넘어 ‘선한 기업’을 세우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어벤처스 신임 대회장 박기일 집사(OCC공동체)가 어벤처스와 청년 기업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선한 기업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크리스천 청년벤처대회 ‘어벤처스’ 신임 대회장 박기일 집사(왼쪽), 어벤처스 멘토와 청년 사업가들의 멘토링 현장(오른쪽).

한 아이가 있다. 뇌병변장애로 손이 불편하지만, 뭐든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는 아이, 태인이다. 하지만 반복이 필요한 재활 운동 앞에서는 늘 힘겨워했다. 아이의 좌절하는 모습을 보던 엄마가 직접 나섰다. 엄마는 아이가 즐겁게 재활하도록 게임을 만들었다. 바로 뇌성마비, 자폐 아동 재활 운동 게임 ‘잼잼 400’이다. 아이들이 태블릿 PC를 보면서 즐겁게 재활을 하고, AI 기술이 아이의 손동작을 인식해 게임 속 캐릭터를 움직이는 방식이다. 이 게임은 단순한 재활 기구를 넘어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가 되고, 부모에게는 희망이 되었다.

이처럼 지금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선한’ 기업들이 주목받는 시대다. 크리스천 청년벤처대회 어벤처스는 그들의 진정성 있는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격려하며,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협력, 함께 만들어가는 ‘선한 기업’

어벤처스가 세상의 벤처대회와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협력’이다. 어벤처스의 시작은 2015년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와 크리스천CEO포럼(CCF)이 함께 주관한 ‘러빙U 청년벤처대회’였다. 꿈을 잃어가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전문성과 영성을 갖춘 ‘청년벤처사업가’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대회였다. 당시 정진호 장로가 대회장으로 섬기며 주축이 되었고, 사업 영역별 전문성과 영성을 겸비한 멘토들이 자원봉사자로 가까이 동참하며 토대를 마련했다.

이듬해에는 ‘청년벤처대회 어벤처스’로 명칭을 바꾸고, 온누리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 차

원으로 사역을 확대했다. 그때부터 일터 영성 전문인 모임인 FWIA(Faith&Work Institute Asia)도 공동 주관으로 함께하며 더욱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었다. 이후 온누리교회 많은 사회선교본부 사역자들과 멘토들, 2기 대회장 김상훈 장로가 큰 헌신과 열정으로 기틀을 닦았다. 온누리교회는 이 사역에 재정과 조직을 보태며 ‘마중물’과 ‘후견자’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 청년벤처기업가들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박기일 집사(OCC공동체)는 세 기관의 연합을 어벤처스의 큰 성과로 뽑았다.

“어벤처스는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와 CCF, FWIA가 함께하는 협력 사역입니다. 교회 혼자서는 절대 감당하기 힘든 일을 좋은 협력 기관들과 지금껏 함께 해왔다는 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10년 동안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고 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벤처스의 ‘협력’은 단지 기관들의 연합에서 그치지 않는다. 멘토와 멘티 관계 또한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는 깊은 협력이다. 박기일 집사는 어벤처스의 멘티-멘토 제도가 다른 일회성 대회와 차별점이라고 했다. 그 관계의 지속성이 어벤처스 가장 큰 자랑이라고 했다.

“어벤처스 멘토-멘티는 단순한 조언자와 참가자 관계가 아닙니다. 일회성으로 만남이 끝나지 않고, 대회 이후에도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오래전 멘토링 했던 회사들과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멘티들은 큰 힘을 얻으며 성장하고, 멘토들은 젊은 친구들과 만남을 통해서 트렌드를 읽기도 합니다. 멘토-멘티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선한 가치’

둘째, ‘선한 가치’를 찾는 것이다. 단순히 높은 기술력이나 큰 수익만을 좇는 게 절대 아니다. 선한 목적을 가진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어벤처스가 배출한 선한 기업들이 정말 많다. 그 기업들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술로 이웃을 돕는 ‘캐스트’도 그렇다. 공기와 물을 깨끗하게 하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회사다. 이 회사 대표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를 돕기 위해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산물유통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과 정수 시설을 설치해 농산물이 버려지는 것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수익을 높이고 있다. 캐스트가 운영하는 농산물유통센터는 또 하나의 선교의 장(場)이기도 하다.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운동하는 자유를 선물하는 ‘캥스터즈’도 있다. 캥스터즈는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 운동 기구를 만드는 회사다. 이 회사 대표의 부모님이 모두 장애인이어서, 부모님을 위한 마음으로 재활 기구를 만들었다. 캥스터즈에서는 휠체어 전용 러닝머신을 만들었고, VR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주도 가능하도록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24 어벤처스 우수 기업인 ‘정리습관’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집이나 회사 등에서 수납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기업이다. 좁은 공간에 물건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인해 개인 공간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물리적인 공간을 넓혀주는 사회적 효과를 제공한다. 이 기업은 경력 단절 주부들이나 재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리 코디네이터’라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신앙’에 기반을 둔 기업가 정신

셋째, ‘신앙’에 기반을 둔 기업가 정신이다. 어벤처스는 단순한 사업 경연대회를 넘어 청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멘토링을 할 때 단순한 경영 조언을 넘어 신앙적 고민이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교육 및 조언을 해주고 있다.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 술자리 접대나 금전적 유혹이 따르지 않을 리 없다. 젊은 청년들은 다른 기업의 빠른 성장을 보면서 더 큰 유혹에 시달리기도 한다. 유혹에 빠지는 청년들에게 박기일 집사가 꼭 해주는 조언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선한 가치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앞드려 어려움을 극복해 보십시오. 빠르지 않아도 옳은 길, 바른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어벤처스는 단순히 사업 경연대회가 아니다.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공동체적 사역이다. 어벤처스의 비전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에 사랑을 전하는 ‘선한 기업’을 세우는 것이다. 청년 기업가들과 동역하며 창의적인 방법과 넘치는 에너지로 세상을 섬기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어벤처스는 국내 대회를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사역을 확장하는 꿈을 꾸고 있다. 이 뜻깊은 여정에 청년 창업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와 관심, 헌신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어벤처스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참여가 필요합니다. 어벤처스 대회 상금은 세상의 대회와 비교해서 아주 적습니다. 이는 헌금과 헌신, 교회 예산으로 마련됩니다. 재정이 채워져서 더 많은 크리스천 청년 기업들을 돕고,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청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어벤처스와 함께 ‘선한 기업’을 세워나가는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문의: 010-4947-6130

맛있는 말씀 해설

“...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신 15:11)

〈신명기〉는 ‘거룩’에 관한 말씀이다. 거룩은 기본적으로 ‘구별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거룩에 관하여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 거룩은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예배를 얼마나 드리는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거룩’이다. 다시 말해, 거룩은 종교성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거룩을 드러내는가?’ 바로 그것이 〈신명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명기〉 15장은 당시 사회의 약자로 구분되던 이방인, 고아, 과부와 같은 사람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강조한다. 이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연결된다.

우리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나님도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세상 속에서 “손을 펴서 도우라”고 명령하신다.

모세는 마음과 눈 그리고 손이라는 세 가지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연약한 이들을 돕고 배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의지를 담은 마음과 그 마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실용적인 손을 통해 율법을 우리 현실의 현실, 즉 일상에서 살아가야 함을 뜻한다.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보면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불쌍함이나 동정심을 넘어서 진정한 연민(Compassion)을 가지라고 명령하신다. 진정한 연민은 감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정 이상의 ‘행동’을 요구한다.

진정한 연민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애원할 때, 〈누가복음〉 7장에서 외아들을 잃은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동일하게

느끼셨던 감정이 있다. 예수님은 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스플랑크니조매’는 ‘창자가 움직인다’는 뜻이다. 즉, 예수님은 단순한 감정적 동정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의 깊이로 연민을 느끼셨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고통을 느끼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눈먼 자들의 눈에 손을 얹으셨고, 나병 환자들의 몸에 손을 대셨으며, 죽은 외아들의 관에 손을 내미셨다. 손을 펴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셨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것을 보여 준다.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만지신 사건이다.

연민의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돕기까지 삶의 관점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

먼저 예수님처럼 속도를 늦춰야 한다. 바쁜

일상으로 분주해진 삶의 속도는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바쁘셨지만, 절대 분주하지 않으셨다.

힘들을 각오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예수님이 부정당한 자를 만지시고,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실 때 힘들을 각오하셨다. 그들의 손을 움켜쥐지 않고, 펴는 것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일이다. 예수님은 힘들을 각오하시고, 우리를 위해 왕의 보좌를 포기하시며, 손을 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는 마음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연약한 이들의 필요가운데로 한 걸음 나아가 손을 펴고 도와야 한다. 그것을 일상에서 이루어 내면서 일상의 거룩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양진범 목사
(평택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생활

9월 29일~10월 5일까지
〈로마서〉 11:11~13:14

목상포인트 1: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신비다. 유대인의 복음 거부하는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다. 바울이 찬양한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 계획에 대해 묵상하자.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고 알았음에도 이를 거부해 넘어졌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접붙임의 비유로 설명한다. 하나님은 참감람나무 가지 중에서 얼마를 꺾어 내시고, 돌감람나무 가지들을 접붙여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게 하셨다. 뿌리는 이스라엘 족장들을, 돌감람나무 가지는 이방인을 가리킨다. 유대인보다 먼저 믿게 된 이방인은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때가 되면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놀랍도록 심오하다.

목상포인트 2: 1~11장은 칭의와 구원의 교리를 다루고, 12~16장은 삶의 적용을 다룬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배하는 삶’이다. 일상의 모든 현장에서 삶으로 나타낼 예배의 모습에 대해 묵상하자.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어 한 몸을 이루며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성도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 형제자매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우애해야 한다. 부지런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힘쓰며,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히 행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목상포인트 3: 국가는 국민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성도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담당할 의무가 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바울이 국가와 지도자를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하는지 묵상하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악을 행하는 자라면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기 때문이다. 성도는 자신에게 부과된 조세나 관세를 바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한다.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에게도 빚을 저서는 안 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에 성도는 빛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유대인의 거부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렀으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유대인도 구원하실 것이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 ▶주일예배가 마치면 그때부터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 평일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을 이어나가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삶의 현장에서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 화목하는 삶,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자. ▶원수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선택하자.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실하게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도록 기도하자. ▶빛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어둠의 일들을 멀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선교사님들의 회복을 위하여!

소명 선교사님(가명)은 남편 부흥 선교사님(가명)과 함께 자비량으로 중동 A국을 섬기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두 분은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일하고, 나머지 6개월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 A국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오던 두 분이 최근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부흥 선교사님은 허리디스크와 팔꿈치 인대 수술을 위해 급히 귀국했습니다. 3월에는 소명 선교사님이 몸에 이상을 느껴 검진을 했는데 급성 신부전증과 다발성 골수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명 선교사님은 현재 여러 차례 투석치료와 3차 항암을 마친 상태입니다. 9월 중순부터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병원 무균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명 선교사님의 신장 기능이 회복되고, 조혈모세포 이식과 이후 항암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치료를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선교지에서 운영 중인 공부방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분 선교사님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 속히 선교지로 돌아가 사역을 이어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성복공동체 성도들

그림으로 보는 성경 속 식물 이야기

겻세마네 동산의 감람(올리브)나무

성경 속 감람나무의 진실과 영적 의미



김준영 권사
(온누리 아트비전 팀장, KCAF 운영위원장, 로렐갤러리 큐레이터, 에제르화실 원장)

몇 년 전, 성경 속 식물을 직접 보기 위해 이스라엘에 갔다.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하게 읽었던 ‘감람나무’는 그곳에 없었다.

사실 감람나무는 130여 년 전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할 당시, 중국에는 ‘자이트’(히브리어,

영어로는 올리브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수형이나 열매 모양, 용도가 매우 비슷한 중국 남부의 ‘감람나무’를 대체어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단어가 한글 성경에 그대로 옮겨지면서 오랫동안 우리는 올리브를 ‘감람’이라 부르며 성경을 읽어왔다. 이제는 올리브나무가 국내에도 수입돼 재배되면서 우리 말성경에는 ‘올리브나무’로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개역개정 성경에는 ‘감람산’, ‘감람유’,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남아있고, 신앙인들에게는 ‘감람’이라는 단어가 더 친숙하고 익숙하다.

올리브나무의 쓰임과 영적 상징

올리브나무는 영광과 평화, 아름다움의 상징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무를 ‘나무 중의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한다. 올리브나무는 성경 곳곳에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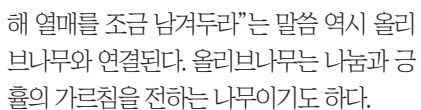
먼저,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홍수 이후 노아가 방주에서 내보낸 비둘기가 물고 온 한 조각의 새 잎사귀가 바로 올리브 잎이었다. 그 작은 푸른 올리브 잎은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있음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였고, 그래서 올리브나무는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불린다.

또한, 올리브 열매에서 짜낸 기름은 영광과 축복을 의미한다. 이 기름은 성전의 금 촛대를 밝히는 거룩한 등불의 기름이었고, 왕과 대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기름이기도 했다. ‘기름 부음’은 곧 하나님의 선택과 영광, 기쁨을 상징한다.

목자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도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졌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 나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지팡이와 막대기 또한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위안하는 목자의 역할을 상징한다.

추수하는 농부들에게 “고아와 과부들을 위

“노아의 방주의 비둘기가 물고 온 작은 올리브 잎이 새 소망을 전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희망을 붙잡는다.”



1. 겻세마네 동산의 감람나무-십자가사랑
Mixed media on canvas
130×130cm (100호 정방)

2. 은혜의 단비 - 어린 감람나무
Mixed media on canvas
41.0×31.8cm (6호F)

3. 은혜의 단비 - 감람나무(올리브나무)
Mixed media on canvas
41.0×31.8cm (6호F)

해 열매를 조금 남겨두라”는 말씀 역시 올리브나무와 연결된다. 올리브나무는 나눔과 긍휼의 가르침을 전하는 나무이기도 하다.

올리브나무의 쓰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단단하고 고운 결을 가진 목재는 솔로몬 성전의 문짝과 문설주, 성계 위의 그룹을 조각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이처럼 올리브나무는 열매뿐 아니라 나무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깊이 쓰임 받았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올리브산) 아래에는 겻세마네 동산이 있다. ‘겻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바로 이곳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아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기름 짜듯 으깨고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 이 기도는 순종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

올리브나무가 전해주는 축복과 새 희망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정과 자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많이 주셨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 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다”(시 128:3-4).

또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라고 말씀하시며 자녀들이 상급이며 축복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우리 믿는 이 세대에게 있기를 기도한다.

그림 2는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녀를 상징하는 ‘어린 감람나무’이다. 감람나무에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 주위로 둥글게 돌 감람나무가 빙 둘러 자리난다. 이 축복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의 단비’ 질감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축복의 존재임을, 모두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며, 어린 감람나무를 밝고 선명하게 표현했다.

그림 3은 많은 가능성을 지닌 청년을 상징한다. 올리브나무는 심은 지 약 15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고, 열매다운 열매는 약 35년이 지나야 맺힌다. 이는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도 같다. 결혼과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긴 시간이 지나 열매 맺는 올리브나무처럼 우리 자녀들도 믿음과 인내로 기쁨과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는다.

나 또한 다섯 번의 유산으로 슬픔과 고통의 터널을 지났고, 그 후 8년 만에, 그리고 다시 5년 만에 선물처럼 두 아들을 주셨다. 또 다른 순탄치 않은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며 기도의 소중함과 가정의 견고함을 선물로 주셨음을 깨달았다. 우리의 삶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올리브 열매와 같다. 노아의 방주의 비둘기가 물고 온 작은 올리브 잎이 새 소망을 전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희망을 붙잡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다”(시 52:8).

어린 감람나무를 보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우리와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날의 회복을 사모한다. 아멘.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장로수련회 ‘응답하라 1985 준비하라 2025’

온누리교회 장로, 교역자 등 315명 참석

2025 장로수련회(이하 장로수련회)가 지난 9월 26일(금) 경기도 여주 마임비전빌리지에서 열렸다. 온누리교회 장로(사역, 시무, 명예, 협동), 교역자 등 315명이 참석했다. ‘응답하라 1985 준비하라 2025’를 주제로 열린 올해 장로수련회에서는 온누리교회 40년 사역을 돌아보며 AI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길 목사 말씀, 23 장로회 특순, 이재훈 위임목사 ‘미래를 이끌어 가는 교회’, 유혁 교수 ‘AI가 바꾸는 세상, 변하지 않는 가치’, 신무환 장로 ‘AI시대에 마주선 여호수아의 눈’ 특강, AI 실습, 강부호 목사 중보기도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자칫하면 익숙한 방식에 안주할 수 있다”



2025년 장로수련회.

면서 “온누리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되, 창의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도 쓰임 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는 “이번 장로수련회는 빠른 속도로 변하는 사

회에서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변해서는 안 되는 것, 변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는 귀한 자리였다”고 고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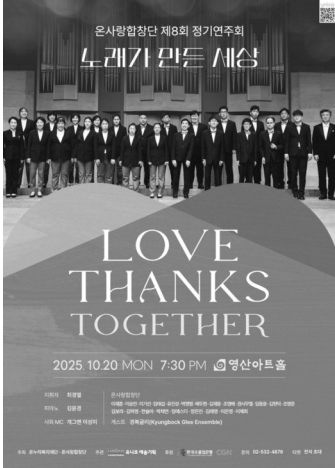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온사랑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10월 20일 오후 7시 30분 영산아트홀

온사랑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가 10월 20일(월) 오후 7시 30분 영산아트홀에서 막 오른다. ‘Love Thanks Together’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개그우먼 이성미가 사회를 보고, 최경열 지휘, 김윤경 반주 등이 ‘노래가 만든 세상’, ‘마음만큼 크는 세상’, ‘5개의 동요합창 모음곡’ 등을 공연한다. 특순은 경북클리가 한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온사랑합창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온누리복지재단 소속 합창단이다. 2011년 창단했다. 2016년부터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2017년에는 전국발



달장애인 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 박지혜 기자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2학기 설명회

10월 1일 오후 1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소극장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는 국제 대안학교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Seoul Providence School) 2학기(봄학기) 설명회가 열린다. 10월 1일(수) 오후 1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5~8학년 학부모가 대상이다.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의 환경과 시설, 커리큘럼 등을 소개한다. 봄학기 원서는 10월 한 달 동안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홈페이지(seoulprovidence.org)에

서 접수하면 된다.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은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 교육과 우수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향후 미국 ACSI(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가 발급하는 3~4년 과정의 정식 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과정은 2026년 개설될 예정이다. 문의: 02-792-0927

청소년 일대일 양육자반 참가자 모집

10월 19일, 26일 오후 7시 50분 온라인

청소년 일대일제자양육(이하 청소년 일대일) 양육자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9일(일)과 26일(일) 오후 7시 5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0월 16일(목)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성인 일대일 양육자반을 수료한 성도가 대상이다. 청소년 일대일 양육자반은 청소년 동반자와 본 과정을 수료한 양육

자가 일대일로 만나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면서 크리스천의 신앙과 삶을 배우는 차세대 일대일제자 양육 프로그램이다. 10월 19일(일) ‘청소년 일대일의 비전과 필요성’을 주제로 이기훈 목사, 26일(일) ‘청소년의 특성과 사례’를 주제로 한지영 장학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4708-8158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참가자 모집

10월 18일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8일(토) 오전 9시 20분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온라인(Zoom)으로 참여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10월 12일(일)까지 아이스쿨이나 QR코드로 하면 된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은 초등학교

생 자녀를 둔 부모, 조부모, 차세대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실습(4회)을 하고,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교재로 직접 12회 양육을 한다. 11월 22일(토)에는 양육자와 동반자를 위한 블레싱 파티를 한다. 문의: 010-4277-4429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2025 아웃리치, 그 못다한 이야기



추석 맞이 ‘따뜻한 밥상’ 선물

온누리울타리, 자립준비청년 39명에게 반찬 나눔

사회선교본부 소속 ‘온누리울타리’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추석 맞이 따뜻한 밥상을 선물했다. 지난 9월 25일(목) 만나하우스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반찬 만들기 행사’가 열렸다. 온누리울타리 소속 봉사자 30여 명이 자립준비청년 39명

에게 갈비, 잡채, 전 등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나눠줬다. 이수정 집사(온누리울타리)는 “온누리울타리가 준비한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 명절에 함께할 가족이 없어 더욱 외로운 자립준비청년들의 배와 마음이 든든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온누리울타리가 추석 당일인 10월 6일(월)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추석감사예배’를 드린다. 온누리울타리 봉사자와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여한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율놀이 등을 하며 감사와 사랑을 나눈다. 문의: 010-6479-0885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남수단 주바대학교 기숙사 빈대퇴치 사업 완료

NGO 더멋진세상이 남수단 주바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퇴치 사업을 완료했다. 남수단 주바대학교는 내전의 여파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였고, 최근 기숙사 빈대 서식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부질환과 수면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을 호소해 왔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8월부터 남자 기숙사 침대 500개와 여

자 기숙사 침대 400개 방역작업을 했다. 매튜(주바대학교 재학생)는 “우기철 빈대 때문에 기숙사 학생들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하는 상황이었는데,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으로 편안한 휴식이 가능해져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홍하영 기자



시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

9월 28일(일) 시가현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의 빛이 임해 어둠 권세가 무너지길
9월 29일(월) 시가현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영혼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길
9월 30일(화) 러브소나타를 준비하는 일본 교회에 연합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10월 1일(수) 가스펠나이트 리더십 포럼 등 모든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길
10월 2일(목) 이재훈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영혼들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10월 3일(금) 모든 봉사자에게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10월 4일(토) 일본과 한국 사역자들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 한 영으로 섬기도록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9월 세례자

■서빙고
강귀순 630801
구숙자 570315
김수현 520220
노용진 660606
박환성 691105
이경재 740705
이서영 851211
이소연 761220
이은주 781219
임광수 630816
탁영진 560725
유아
권 율 220215
권영식 박백희
김규원 240102
김동희 박태정
도채아 240925
도현준 채유나
이하림 240530
이영재 임그린
조이현 220831
조성래 하화정
차동원 240808
차현우 김수경

손정우 장정인
신동윤 241011
신경철 윤수경
임지섭 230925
임채영 이민경
정아인 250115
정지복 박미나
정아인 220729
정정호 김규리
〈대학청년〉
■갈렘
유아
박하일 250222
박준형 유다혜

■하늘
입교
김재욱 031204
신예진 011122
안예지 050520
이혜성 021224
조서영 030204

■J4U
이다희 970708

입교
김유신 951206
정희운 961122

■SNS
양아라 951116
이소영 940218
이제민 980120
유아
곽민준 240723
곽경민 김미선

■ 서빙고공동체와 서검도교회

잊었던 연(緣)을 다시 잇다

서빙고공동체에 속한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해외 아웃리치를 다녔다. 그중에서도 해마다 발걸음했던 인도네시아는 내게 아웃리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땅이었다. ‘아웃리치’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장 인도네시아가 떠오를 만큼 다른 지역은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 사정으로 인도네시아에 갈 수 없었다. 하나님은 내게 ‘아웃리치를 쉬지 말라’는 뜻을 보여주시듯 공동체 아웃리치 팀장을 맡게 하셨다. 해외가 아닌 국내 아웃리치는 다소 어색했고, 공동체 역사상 처음으로 떠나는 국내 아웃리치가 부담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내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다. 아웃리치 장소 선정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 40년사 집필하던 박순길 장로님이 ‘서검도교회’ 이야기를 전해주시며 그곳을 추천하셨다. 온누리교회와 인연이 깊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기대하는 마음이 더욱 부풀었다.

서검도교회는 강화도 오지 섬 ‘서검도’에 있다. 서검도는 석모도에서 배를 타고 20여 분 더 들어가야 하는 작은 섬으로, 약 3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중에서 15가구가 서검도교



서빙고공동체가 서검도교회 성도들과 서검도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회에 출석하고 있다. 서검도교회를 섬기는 정용 목사님은 2009년부터 해마다 서울에서 서검도로 봉사를 와서 주민들과 깊은 정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8년 전 서검도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정용 목사님께 온누리교회 서빙고공동체에서 아웃리치를 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크게 반가워하셨다. 그러면서 1989년 온누리교회와 결연하면서 제작한 결연패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36년

전 온누리교회의 도움으로 세워진 서검도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더불어 초대 목사였던故 최재철 목사님의 헌신과 안타깝게도 교회를 둘러싼 좋지 않은 사건들로 주민들이 마음을 담은 아픈 역사도 나눠주셨다.

우리는 섬 주민들이 쉽게 맛볼 수 없는 자장면, 닭강정, 팔방수를 준비했다. 주민들이 그 음식을 보고 환한 웃음을 지었고, 우리도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정을 직접 찾아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 드리고, 작은 선물과 마사지를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제했다. 짧은 기간 머무는 아웃리치였기에 눈에 보이는 큰 변화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번 만남이 앞으로 서검도교회와 서검도 주민들, 정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 정용 목사님은 지난 16년 동안 봉사와 목회를 이어오며 지쳐있었는데, 서빙고공동체의 방문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잊었던 이들을 찾고, 그 연(緣)을 이어가는 일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임을 깨달았다.

36년 전 온누리교회의 도움으로 세워진 서검도교회가 오랜 세월 잊혔었는데, 이번 서빙고공동체 아웃리치를 통해 다시 연결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다. 이 작은 연결이 정용 목사님께 깊은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섬의 모든 주민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기적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김진환 성도
(서빙고공동체)

■ 연합 아웃리치 참가자 간증



/ 정우근 다락방장(양재B공동체)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한려수도를 찾았다. 우리는 고즈넉한 ‘서좌도’에서 한산도 아웃리치를 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김과 찬양으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나아가는 아웃리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양재B공동체 다윗다락방, 대학청년부, 주찬미남성합창단이 연합해 함께 복음의 씨앗을 품고 서좌도를 찾았다.

서좌도는 화려한 휴양지의 낭만과는 거리가 먼 작은 섬마을이다. 그곳에서 묵묵히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신 이종구 목사님과 ‘서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했다. 함께 한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귀한 깨달음을 안겨 주었다.

16가구 주민 27명에게 전달하려고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다. 선물과 복음을 들고 가가호호 방문한 ‘전도 마실’은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삶의 고단함에 지친 어르신들이 ‘서울에서 온 교회’라는 말을 듣고 활짝 웃으며 반겨주셨는데,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복음의 씨앗이 눈에 띄는 열매로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소 속에 심은 사랑의 씨앗이 언젠가 믿음의 싹을 틔우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빛과 소금의 사명!

이번 아웃리치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잔치’였다. 70~80대 어르신들을 서좌교회로 초청했다. 그리고 주찬미남성합창단, 대학청년부, 공동체 ‘남성중창단’이 함께 찬양했다. 밝고 경쾌한 율동과 아름다운 화음이 무대를 가득 채웠다.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위로와 격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진솔한 간증이 이어졌다.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소망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사랑과 치유의 물결을 흘러보내 주셨다.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해 준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와 축복을 전한다. 함께 웃고 기도하며 섬겼던 모든 순간이 잊지 못할 추억이자 귀한 양식이 될 것이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서좌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린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이다. 우리 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 이상근 목사(산동교회)

“시골 작은 교회에서 큰 꿈을 입은 아이들이 별처럼 빛났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충북 보은에 매미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보다 아이들의 찬양이 더 크게, 더 힘차게 울려 퍼졌다. 충북 보은은 오래전부터 우상이 깊게 뿌리내린 땅이다. 불교와 무속이 가득한 충북 보은이 천국으로 변했다. 시골 작은 교회의 아이들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소리가 마을을 울렸다.

이번 보은 아웃리치는 ‘하나님의 꿈을 입은 요셉’을 주제로 열렸다. 산동교회, 어부동교회, 평안교회, 온누리교회 유아부 교역자와 교사, 아이들까지 약 90명이 함께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요셉을 분장해서 보여주는데 너무 실감 났어요. 또 보고 싶어요”라고 고백했다. 아이들이 ‘판위집기’ 활동을 하면서 삶이 역전된 요셉 이야기를 경험했다. ‘물놀이’와 ‘소그룹활동’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친해졌다. 저녁 기도회에서는 아이들이 두 손 들고 “주님”을 크게 불렀다. 암으로 고통받는 친구를 위해 기도했다. 교사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울렸다. 아이들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우리를 별처럼 빛나게 써주세요”라고

큰 꿈을 입고 별처럼
빛나는 아이들

외쳤다. 그 기도는 어른들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온누리교회 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믿음의 본질을 다시 깨달았다”라고 간증했다. 사실 이 모든 시간은 오랫동안 시골교회 교사들이 버텨온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며 5년, 10년, 20년을 기도로 지켜온 어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열매가 맺혔다.

성경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땅만 보던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롬 10:17)라는 진리가 아이들 삶 속에서 서서히 일어났다. 하지만 교사들은 “혹시 이 아웃리치가 내년에 끊어지면 어쩌나”하고 걱정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마 16:26)라는 마음을 품은 아웃리치의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작은 교회 아이들이 빛나 보였다. 땀과 눈물로 드린 기도가 우상이 가득한 충북 보은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췄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온누리교회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장로칼럼

삶과 영혼의 마중물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마중물’ (Priming water)은 땅속 깊은 물을 끌어 올리려고 펌프에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이다. 내가 어릴 적 시골집 마당에 쇠 파이프를 땅속 깊이 박아 내린 펌프가 있었다. 물을 끌어 올리려고 한 바가지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해대면 물이 땅속에서 팔팔 솟아져 나왔다. 새 물을 가져다주는 것이 한 바가지 물이라면, 내 영혼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중물은 무엇일까?

“내가 가진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걸 깨달았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렇다. 감사가 행복의 마중물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긍정의 마음을 마중하면 기쁜 마음에 이르고, 이 기쁜 마음이 행복을 불러오는 원동력이 된다. 감사할 일이 많으면 부정적인 마음도 긍정의 마음으로 바뀐다. 삶의 분위기를 여유롭고 부드럽게 만든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다. 그냥 그런 하루가 아니라 소중한 하루이고, 감사의 저녁이 된다.
“나 하나 한다고 뭐가 되겠어.”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한다. 변화가 필요하지만, 용기가 없을 때, 분투가 필요하지만, 겁이 날 때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는다. 현실은 그대로이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누군가와 만나서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한 첫마디의 말이 우리 인생에 좋은 관계를 위한 마중물이 된다. 인생의 빛이 나려면 당연히 지 않은 반을 해야 한다. 큰 고통을 이겨낸 사람, 불행 속에서도 행운을 잡는 사람을 우리는 칭송한다. 당연한 운명을 거슬러 당연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삶이 어려울 때 감사보다 불만을 먼저 얘기하고, 포기하는 건 쉽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 어떻게든 해내려고 해보는 건 어렵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스스로 어려운 일, 당연하지 않은 행동을 해내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인생은 꼭 한 가지 길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면 빨리 돌아가서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잡으며 나의 가치를 다 시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 아름다운 꽃길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저절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은 사는 게 고달프다고 입을 모은다. 몸이 고달픈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 내가 작은 글이라도 쓰는 이유는 동시대 인과의 호흡이고, 소통이고, 동행이고, 마땅히 그들을 위한 위로와 축복이고, 공감이다. 지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힘든 사람을 살려내려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약이 문학이고, 마중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는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시인 조동화는 나를 이렇게 위로한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고생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남이 고생해서 이룩한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독서다. 책은 우리 삶과 영혼의 마중물이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마중물이다. 책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된다. 자신의 재능과 꿈을 일깨우는 마중물로 쓰일 수 있다. 한 권의 책이 행복한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삶과 신앙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이 영혼의 마중물이 되는 이유다.

권사칼럼

사랑, 그 신비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서울 온 김에 불일도 볼 겸 아들 집에서 이틀이나 묵었다. 오랜만에 세 식구가 둘러앉아 오순도순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참배처럼 사각사각 상냥하게 구는 며느리의 모습은 늘 감동이다. 집에 간다고 전화하면 도착시각에 맞춰 지하철역까지 마중 나와 가방을 들어준다.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고, 잠자리에 누우면 직접 만든 천연팩을 정성껏 얼굴에 발라주며 머리맡에서 참새처럼 재잘댄다. 신랑 먹이는 건강식품을 같이 챙겨주는 배려는 어찌 그리 엽엽한지. 아들 집에 오면 며느리 호강이 늘어져 절로 입이 벌근다.

주일에는 오랜만에 강동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기로 했다. 전철 타고 간다고 말려도 차로 모셔다드린다고 따라나섰다. 시어머니 대접하는 걸 도리로 알고 즐기는 마음이 얼굴에 자연스러운 편안함으로 묻어났다. 천성이 선하기도 하지만, 매사 밝고 긍정적인 사고가 그 아이에게 삶의 에너지가 되어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며 사는 게 보였다. 그녀의 삶은 늘 여유가 있고 활기와 정겨움이 넘친다. 어떻게 이런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과묵한 아들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감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권사회 소그룹 모임이 있었다. 대형 교회는 거대한 조직 속에 자칫 사역이 중심이 되어 형적 관계망이 메마르고 경직되기 쉽다. 소그룹의 따뜻한 인간관계는 이런 조직의 부족한 틈새를 든든히 엮는 연결고리다. 교회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일

상의 입맛에서 벗어나 별식 메뉴로 입이 호사했다.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는 늘 따사롭다. 화기애애담소를 나누며 반가운 회포를 나눴다.

수필 신인상 축하 자리의 여운은 길기도 하다. 쥐꼬리만 한 상금은 여러분 대접 차 잘려나간지 오래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슴에는 잘려나간 꼬리가 재생되기도 한다. 후식 커피는 내가 쓴다고 호기를 부릴 수 있는 여유가 행복했다. 조장이 준비한 케이크에 촛불까지 밝히고 한껏 축하를 받았다. 사랑의 징검다리에 마음이 건너가고 건너왔다.

병든 친정어머니 수발하러 외국에서 돌아와 모시고 산다는 효녀 딸, 평생 시어머니를 인생의 멘토로 여기며 살다 이제 몸져누우신 그분과의 마지막 동행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와 애처로움으로 눈물 맺히는 어느 권사님. 세상의 인심과는 거리가 먼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며 콧등이 시큰해졌다. 허리가 아파 성가대에서면 다리에 쥐가 나 예배 시간 내내 기도로 자신과 싸우면서도 기쁨으로 헌신한다는 연세 많은 권사님 이야기에는 믿음의 도전을 받았다. 마음의 문을 열고 진솔하게 나누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들으며 찡한 감동이 가슴 축축하게 젖어왔다.

사랑이 머무는 자리는 늘 따사롭고 좋은 향기가 난다. 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절망에서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는 힘이다. 더불어 사는 행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기쁨도 누리게 한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며느리의 낭랑한 목소리에 비었던 집의 냉랭함이 온기로 가득 찼다.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단지 마음 한 자락 열면 이리 행복해지는 일인 것을. 사랑은 시들은 삶을 활기 있게 바꾸는 묘약이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는다. 주변을 사랑으로 물들이며 살자.

선교지에서 온 편지



김샤야, 최마리아
선교사(캄보디아)

무더운 여름 내내 한국에서 수고하셨을 동역자님들께 주 안에서 사야선교센터 성도들과 함께 안부를 전합니다. 사야선교센터의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캄보디아도 올여름은 무척 덥고 소란스러웠습니다. 태국과

의 전쟁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여행객이 크게 줄어 가난한 나라의 경제적 여건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이 공존하다 보니 캄보디아 내부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소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 중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기에 현지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초청한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의 슬픔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JDS팀과 함께 사야선교센터에 벽화를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멍 나고 곰팡이가 핀 벽과 칙칙한 공간이 아이들의 웃음과 팀원들의 손길로 하나둘씩 색을 입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예쁘다, 밝다”며 웃을 때, 그들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벽을 꾸미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색으로 그려낸 복음의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수년 동안 기도로 준비한 지역에서 현지 학교와 함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서초B공동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 간단한 음식 하나에도 서로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것을 나누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지역 사회가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자회는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복음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은혜의 장(場)이었습니다.

이번 사역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준 순간은 현지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드린 예배와 세족식이었습니다. 서로 언어는 달랐지만,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세족식에서 서로의 발을 씻기며 축복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눈 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많은 분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서 진정한 연합과 사랑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선교사인 저에게 마음으로 주셨던 생각들을 하나씩 진행하심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현지 교회와 연합하는 사야선교센터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교 방역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해충을 제거하는 일이었는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깨끗해진 교실에서 안심하고 공부하도록 돕는 우리의 작은 섬김 속에 예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교회가 자기들의 실제적인 필요까지 돌봐주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섬김이었지만 그것이 곧 복음의 능력임을 확인했습니다.

올여름 행해진 모든 사역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였습니다. 벽화의 색감 속에, 바자회의 웃음 속에, 세족식의 눈물 속에, 방역하는 작은 섬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단순한 활동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추석연합수련회 ‘하비스트’ (Harvest)

이렇게 진행됩니다

‘Renewal’(다시 새롭게) ... 10월 4~6일 파주 영산수련원



드디어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수련회 2025 하비스트(Harvest)가 막 오른다. ‘Renewal(다시 새롭게)’을 주제로 10월 4일(토)부터 6일(월)까지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올해 하비스트에는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아랍,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 16개국의 이주민 성도, 스태프 및 봉사자 1,085명이 참석한다. 네 번의 예배와 국제문화축제, Mini Nations Tou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 주제: ‘Renewal(다시 새롭게)’

일시: 2025년 10월 4일(토)~6일(월)

장소: 파주 영산수련원(경기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391번길 40)

◆ 예배 주제 및 강사

주제 말씀: 〈에스겔〉 37장

강사: 이재훈 위임목사,

인도네시아 마주 목사

(안디옥국제선교회 평택교회 책임자),

해럴드 김 목사(영어예배),

김태완 목사(온누리M미션 담당)

◆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서울역(1, 4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이용) → 금촌역 하차, 333번 버스 환승 → 오산리기도원 하차

오산리기도원행 버스: 여의도순복음교회 → 정발산역 3호선(3번 출구 15m 앞) → 기도원 (영산수련원)

◆ 하비스트를 위한 기도제목

하비스트는 주님이 부르신 열방의 이주민들과 함께 예배하는 연합수련회입니다. 이번 하비스트가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Renewal’, 영적 갱신과 부흥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비스트를 통해 열방의 이주민들이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가족임을 경험하고, 복음의 후사로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하비스트를 통해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와 이주민들의 심령이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둘째, 설교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셋째, 하비스트에 참여하는 16개국 이주민들이 영적 하나됨과 풍성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넷째, 사역자와 봉사자들이 강건하고 기쁨으

로 섬기며, 많은 중보자와 후원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다섯째, 하비스트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810031-7460
5(온누리교회 온누리M미션)

◆ 문의: 031-491-9650

시간	10월 4일(토)	10월 5일(주일)	10월 6일(월)
7:00~8:00	도착	기상 & QT	기상 & QT
8:0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9:00~10:00		[Worship 02] '말씀' 마주 목사	[Worship 04] '비전' 김태완 목사
10:00~11:00			
11:00~12:00		성찬식	
12:00~14:00		점심식사	정리(청소)
14:00~16:00	등록 및 숙소 배정	Mini Nations Tour & BBQ	귀가
16:00~18:00	국제문화축제 & OT (나라별 특선)		
18:00~19:30	저녁식사	자유시간	
19:30~22:00	[Worship 01] '회개' 이재훈 위임목사	[Worship 03] '성령' 해럴드 김 목사	
22:00~23:00	Renewal 모임		
23:00~24:00	취침	국가별 모임	

하비스트 참가자 간증

“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은혜”

이번 하비스트에도 함께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비스트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비스트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비스트를 통해 같은 믿음 안에서 다양한 나라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서로의 문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비스트에서 제 인생의 반려자인 아내를 만났고, 두 자녀를 낳고 크리스천 가정을 이루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

든 일들을 통해 제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크리스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로타낙 형제
(캄보디아공동체)

“내 삶을 변화시킨 하비스트”

하비스트가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비스트 덕분에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비스트 내내 저의 힘이자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비스트에 갈 때마다 좋지 않은 상황에 있기도 했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제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비스트는 저에게 더 많이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저를 붙들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하비스트는 교회에서만 아

니라 교회 밖에서도 제 친구와 동료들에게 복음을 나눌 용기를 주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불신자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비스트를 통해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야 한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그네스 자매
(필리핀공동체)

국내 온누리교회 ●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살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편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변대성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안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한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윤남로 49 • 제주 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관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 AMA 협력교회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서부 • 얼바인 박산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창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am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m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마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글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nsait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 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 GAWA-KU SHIMAI-CHO61 EHLA DAIA- MOND 2F • 교토 권영철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섬기는 분들						
◆위원장사 이재운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변대섭 신동식 김승수 노혜태 양재경 도윤희 노규석						
◆부목사(주임)						
강기환 강순우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해영 김진도 김래유 김미정 김성구 김선재 김성옥 김성웅 김성겸 김승만 김병배 김요섭 김용민 김용산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제소 김희희 김중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철희 김대용 김태원 김현석 김한국 김현실 박준근 노치형 럼문홍 문영재 김근범 박성인A 박성업 박성전 박치양 박철용B 박성일 박형준 배소연 배협삼 백성우 서수민 송석근 송영동 송재조 신기현 신경훈 신대총 신원식 신현민 송동주 송재호 안서필 양성민 양진범 여성민 오 민 오규원 오현교 유진아 유현호 원미라 윤이사학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미오 이상옥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우재 이준호 이진기 이찬우 이호준 이한규 이용성 정돈원 장선빈 장재원 전병현 전진익 전 진 전재표 정동윤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영산 정현석 정희소 정은광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은광 조현수 진선미 최대흥 최석규 최성민 최대성 최용춘 최채훈 최혁중 최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청훈 한화수 한충희 해탈금 허헌희 황문규 황신연						
◆전도사(주임)						
김한솔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주용 안대진 유성하 유현우 이승호 이형록 임동원 정지훈 주하늘 최강호 홍근영 황유일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해미 조호영 황준연						
◆경배와 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국내 파견 목사 고병석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거 안한균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종도 김두공 김병철 김은하 강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종영 김태주 김해경 네트과 문봉주 박씨마 박지운 백승현 백인선 베 킬 서경남 서영철 생애비 양한수 율예씨 에미 마 칼 스티븐 이기환 이민영 이상희 이승환 이은일 이진이 이창호 임현석 임혜선 정요한 정진도 제인랑 제니퍼 최선재 최정현 허요정 황연선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구길도 권영찬 권여암 권평화 권현성 김기화 김경배 김기태 김동우 김기초 김미리 김민수 김빛나 김승희 김소망 김소방 김예찬 김유미 김지석 김지선 김태현 김희선 김하은 김현철 김현주 김홍미 김하목 나가노 마사토 미 헤 무야베레 피터 드미트리 문수진 마르셀라 박 권 박미에 박상현 박 성 박성훈 박시온 박찬희 박유진 박의력 박종일 박찬미 방이연 방자인 배윤주 배현희 서아연 서은규 서해진 손위철 송영호 순찬록 신내래 신우결 신은섭 안루택 염경덕 오성광 오성민 오예원 오진우 오혜광 옥운우 우수진 우승호 유현하 유천우 유지은 윤길본 윤조현 윤종연 윤종연 윤지현 이건호 이난단 이미진 이민규 이관진 이서란 이시혜 이소라 이승은 이승희 이시하라 노리고 이재찬 이은미 이은찬 이재용 이진주 이주영 임경미 이지영 이태민 이형준 임경미 임노완 장근우 장성영 장영주 정민연 정준호 정경일 정기은 정왕원 정연영 정영현 정은영 정우만 정관중 재영민 조기언 조슬기 조영찬 조윤식 조윤식						
◆지역장로						
강경국 강기직 강인자 강영재 강의선 권득환 권영석 권용성 구재영 권칠준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명준 김광선 김명종 김남식 김명훈 김병욱 김상식 김병익 김선태 김택배 김성욱 김성소 김성인 김수억 김수웅 김영수 김원규 김이곤 김웅배 김 위 김원규 김원준 김원중 김유식 김의덕 김이준 김정설 김재익 김재일 김준홍 김진국 김종소 김철수 김태성 김하중 김창욱 김현철 김형중 김형중 나상권 노재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봉호 문용실 문현구 박 공 박석봉 박병익 박봉태 박상송 박수길 박영국 박영대 박영태 박용국 박우형 박일구 박종현 박찬민 박대성 박형민 박용규 박 대 법안일 배용운 배용기 상방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장섭 손한기 송영범 송영대 송승신 송일집 송재길 신만인 신각자 신우권 신하철 심한주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호 안국영 안동휘 안성영 안용태 안태환 양유식 양제수 양준경 엄태진 오성연 오성훈 우승근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현 유 형 유기룡 윤성열 유이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영주 이강범 이재준 이귀중 이길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증 이길수 이두송 이상기 이상익 이상우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영경 이우대 이정호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재근 이중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한규 이현조 이화영 이광순 임광순 장 규환						
◆주수합						
최정호 최은혜 최은태 최은하 최은하 최은하 최은하 최은하						
◆장신청						
장정호 장동영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악팀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악팀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악팀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악팀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악팀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악팀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악팀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악팀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악팀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장정호						

소천	복지재단	재정	광고
9/19(금) 도곡 황제성 성도 부친상 고 황현수 9/20(토) 이춘 김인기 권사 부친상, 강찬옥 집사 병부상 고 김학연 9/21(일) 동대문중앙 협혜숙 권사 시모상 고 이화순 9/21(일) 양천 김영환 성도 부친상, 성경주 성도 시부상 고 김찬진 9/21(일) 강남배 김미래 성도 부친상 고 김경문 9/22(월) 과천의왕 박찬란 집사 부친상 고 박은서 9/22(월) 양천 박찬중 집사 부친상, 이민우 권사 시부상 고 박은서 9/22(월) 양천 이봉의 장모 모친상 고 이석남 9/23(화) 성동광진 허경옥 성도 배우자상 고 백명권 9/23(화) 강남배 윤대근 성도 부친상 고 윤영엽 9/24(수) 이미정 성도 모친상 고 박명옥 9/25(목) 마포 정승훈 성도 부친상 고 정순화	온누리복지재단 후원회차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외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까지 모집: 자원봉사활동용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결 봉사 신청: VMS 신청, 우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청장년 세대(청년, 외국인) 합창단 모집 기간: 2025년 11월까지 모집: 세대 교류 및 소통을 희망하는 청장년 세대(청년, 외국인) 내용: 합창 연습, 세대 간 교류 및 소통 신청: 우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시립서울역광복상당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협의의 헌금 매뉴얼에서 모바일헌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헌금온라인 안내 신용카드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지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열린새신자예배 섬김이 모임 분야: 안내, 웰컴, 미디어, 찬양, 무대 등 자격: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모임: 10월 12일까지 문의: 02-3215-3177 26~27년 온누리교회 미화 관리 용역업체 선정 공고 업무: 건물 내외부 및 주변 외곽 미화 관리 및 지원, 기타 지정 부속 건물 청소 인원: 총 32명(서빙고 13명, 양재 15명, 양지 4명) 계약: 2026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2년) 제출: 10월 22일(수)까지 문의: 02-570-7501, 010-3309-9243 *상세한 내용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알림판 참조 제531기 업그레이드 부부학교 모집 일시: 10월 18일~25일(1주차: 10/18-19 1박 2일(10:00-다 음날 17:00), 2주차: 10/25(10:00-16:00) 대상: 더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부부, 부부관계에 서 위기 상담이 필요한 부부 강사: 주수일, 오은진 부부, 박호근, 옥에스터 부부 문의: 02-444-5882



CGN은 지난 2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전 세계에 순수 복음을 흘려보내는
선교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CGN의 사역에 동참해주신 1,761명의 후원자님들 감사합니다.

“당신이 무명(無名)의 선교사입니다”

CGN 후원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온누리선교재단)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

신규후원 QR



증액후원 QR

